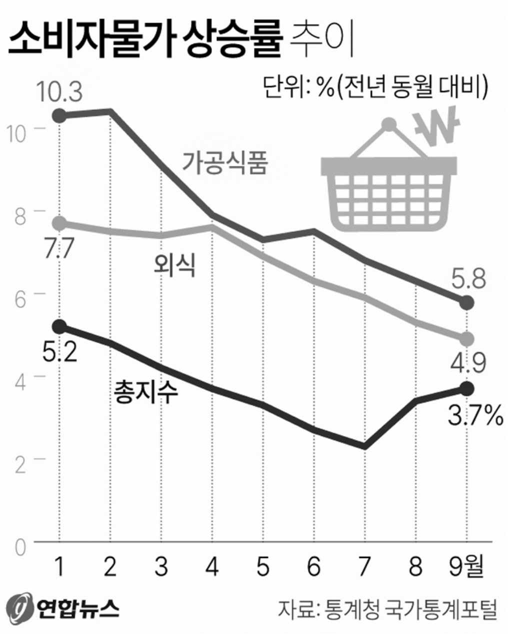
우유·맥주에 햄버거까지 줄인상…더 얇아지는 '유리지갑'



짜장면 6800원·삼계탕 1만6400원…외식품목 8개 중 7개 가격 인상

소비자물가 외식비 5.3% 올라…맘스터치·맥도날드 등 버거가격 상승

"먹거리 가격이 너무 올라 걱정이에요.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취업준비생이라 부담이 더 큽니다…."

대학가 인근에서 자취 중인 취업준비생 박모(30)씨는 최근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아르바이트로 벌어들이는 한 달 수익은 그대로인데, 식사비용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박씨는 "햄버거, 짜장면과 같은 대표 외식 메뉴는 물론 편의점 음식들도 가격이 10%는 오른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영원할 것 같았던 '공기밥=1000원' 공식도 깨져, 최근엔 1500원, 2000원 받는 곳이 많다"며 "특별한 수입이 없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들은 연이은 외식물가 상승에 하루 세끼 먹기가 버겁다"고 말했다.

먹거리 가격이 연이어 인상하면서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당장 대형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인상을 예고한 데 이어 맥주가격 출고가마저 최근 인상됐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 음식으로 대표되는 자장면 평균 가격도 7000원에 육박하는 등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8월 광주지역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은 평균 6800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1.5% 올랐다. 삼계탕도 1만6400원으로 1000원 인상됐으며, 이밖에 김밥 등 통계를 내고있는 8개 외식품목 중 7개 품목 가격이 전달보다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

식음료 기업들의 가격 인상도 줄을 잇고 있다.

이날 업계에 다르면 오비맥주는 지난 11일부터 카스와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공장 출고가를 평균 6.9% 올렸다. 오비맥주가 국산 맥주 제품 가격을 인상한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9개월 만이다.

햄버거 프랜차이즈 업체인 맘스터치는 31일부터 닭가슴살을 원료로 쓰는 버거 4종의 가격을 올리기로 했고, 맥도날드는 다음달 2일부터 13개 메뉴의 가격을 평균 3.7% 올린다. 맥도날드는 이미 올해 2월 가격 인상을 한 바 있는데, 8개월 만에 또다시 가격 인상을 예고했다.

지난달 광주와 전남 소비자물가 역시 작년 같은 달 보다 3% 이상 올랐다. 특히 외식비가 5.3%(광주) 올라 비교적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보면 구내식당식사비(10.3)%, 생선회(외식·5.3%), 피자(12.3%), 치킨(5.4%), 커피(외식·4.2%) 등 대다수 먹거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보면 외식 물가는 1년 전보다 4.9% 올랐지만 2년 전보다는 14.3%나 상승했다.

칼국수 물가는 1년 전보다 4.1% 높지만 2년 전보다 16.1% 높고, 치킨도 1년 전보다는 4.4%, 2년 전보다 15.6% 각각 상승해 차이를 보였다.

햄버거는 2년 전보다 19.6% 올랐고, 짜장면도 2년 전보다 19.9% 상승했다.

여기에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격화 등 중동 상황이 국내 먹거리 물가를 자극할 우려도 있다.

최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5%를 웃돌던 올 초에 비하면 둔화했지만, 잇따라 고공행진을 하는 상황에서 상승 폭이 감소했을 뿐 먹거리 물가 부담은 그다지 줄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멕시코 휩쓴 'K-푸드' 최근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K-팝' 복합 문화행사 '모꼬지' 행사장에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선보인 'K-푸드' 체험 홍보 부스가 현지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aT는 멕시코 인기 수출 품목인 녹차, 유자차, 알로에음료, 과자 등을 활용해 '오감으로 즐기는 K-푸드 전시 체험관'을 운영하는 등 K-푸드 홍보를 진행했다. 〈aT 제공〉

광주은행,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재구축

디지털 기반 고도화 작업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30일 금융거래의 디지털화, 자금세탁 범죄의 고도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을 전면 재구축 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국내외 규제 환경을 반영하고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고객확인의무(KYC) ▲고객위험평가(RA) ▲거래모니터링(TMS) ▲내부통제(IC) ▲무역이상거래방지(TBML) 부문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 전반에 대한 고도화를 이뤘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 금융거래 분석을 통해 고객별 자금세탁 위험도를 정밀하게 평가하고, 호율적인 거래 모니터링과 의심거래 분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로봇업무자동화(RPA) 적용 업무를 확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FTA 원산지 발급실무-아세안 집중 공략' 교육

광주FTA통상진흥센터

광주FTA통상진흥센터에서는 31일 광주상의 2강의실에서 'FTA 원산지 발급실무-아세안 집중 공략편' 교육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관세법인 한영의 박현수 관세사가 한-아세안 국가와의 ▲FTA 개요 ▲아세안 각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관리실무 등을 중심으로 7시간 동안 진행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교육 수료 시 기업은 인증수출자 점수 12점을 인정받아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와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주는 인증수출자 자격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후형 센터장은 "아세안은 교역 규모 2000억 달러가 넘는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아세안 국가와의 FTA 활용 효과를 극대화해 지역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310.55 (+7.74)
↑	코스닥	757.12 (+8.63)
↑	금리 (국고채 3년)	4.089 (+0.016)
↓	환율 (USD)	1350.90 (-5.00)

'화순 가을꽃 축제'서 수돗물 체험행사

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중부권지사는 지난 27~28일 '2023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행사장에서 수돗물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사진〉

행사는 수돗물 시음회와 '물드림캠프'(어린이 수차발전기 만들기) 등으로 구성됐다.

수돗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음용률 향상을 위해 마련된 행사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남도 지부와 함께했다.

수돗물 시음회는 수돗물과 생수 2종을 비교해 마시는 블라인드 테스트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자 총 618명 중 43%가 수돗물 맛이 가장 좋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또 참여자들은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수돗물 음용을 늘리겠다고도 답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